# 낯뜨거운 성추문 … 더 낯뜨거운 '귀국 종용' 진실공방

## 윤창중 성추행 사건 전말

### 박근혜 정부 도덕성 문제까지 확산 가능성

### 늑장보고·은폐 의도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수행 도중 전격경질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을 둘러싸고 관련 주체들이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어 사건의 초점이 진실공방으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과 윤 전 대변인간의 진실공방은 그 결과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도덕성 문제로까지 확산할 수도 있어 초미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사건 전후 행적**=워싱턴 경찰 당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 발생 시간은 7일 오후 9시30분이며, 종료 시각은 30분 뒤인 오후 10시로 돼 있다. 또 피해자가 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한 시간은 8일 낮 12시30분으로 적시돼 있다. 윤 전 대변인은 사건이 발생한 날 박 대통령의 마지막 일정인 한미동맹 60주년 기념만찬이 끝나는 시간이 오후 7시30분이어서 윤 대변인은 이 행사에 참석하고 나서 사건이 발생한 백악관 인근의 한 호텔에 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호텔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현지에서 인턴으로 채용된 피해 여성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자진 귀국' vs '권유 귀국' 놓고 진실게임**=윤 전 대변인이 미국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음을 알아챈 시점은 8일 오전 7시30분에서 8시 사이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은 전광삼 대변인실 선임행정관으로부터 "피해 여성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울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미국에서 수사를 받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여겼는지 곧바로 귀국을 결심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윤 전 대변인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이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경제인 조찬 행사를 마치고 수행원 차량을 타고 오는데 이 수석으로부터 전화가 와 영빈관에서 만났다"면서 "그러더니 '재수가 없게 됐다. 성희롱에 대해서는 변명을 해봐야 납득이 되지 않으니, 빨리 워싱턴을 떠나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제가 이 수석에게 '잘못이 없는데, 왜 제가 일정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인가'라고 말했지만, 이 수석이 '1시반 비행기를 예약해놨으니 핸드캐리 짐을 찾아 (미국을) 나가라고 말해서 상관인 이 수석의 지시를 받고 제 카드로 비행기 좌석표를 사서 인천공항에 도착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때 정황상 100% 기억나진 않지만 제가 귀국하는 게 좋겠다거나 얘기한 건 없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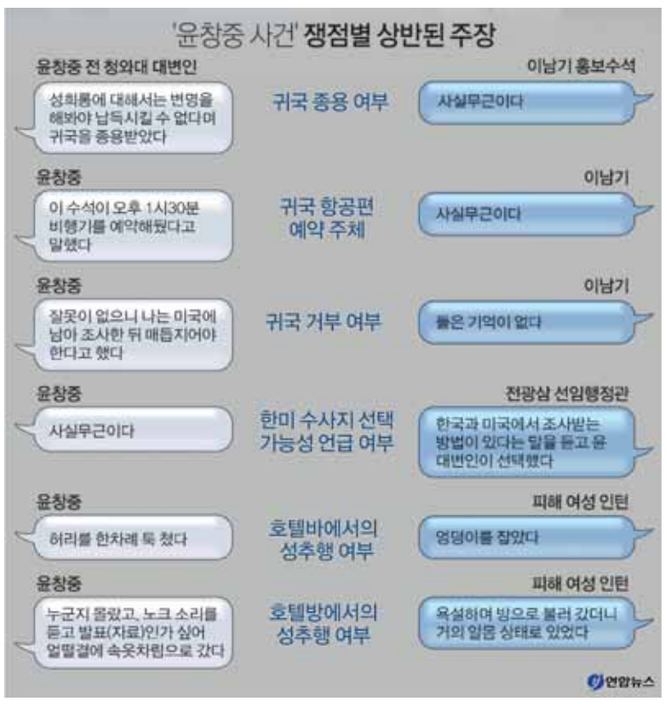
◇**'늑장보고' 논란**=청와대 방미팀의 '늑장 보고'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건 발생 하루가 지나서야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졌는가 하면 허태열 비서실장에게는 귀국길에서야 직접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수석은 지난 11일 춘추관 기자실에서 늑장보고가 은폐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때 제가 (이 사실을) 안게 현지시간으로 8일 아침이고 9일 아침에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 바로 보고드릴 시간이 없었다는 게 거짓말 같을지 모르지만 정말 시간이 없었다"며 "가능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어 그날 저녁에 보고드리려 했지만 대통령 일정이 너무 바빠 다음날 아침에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청와대 방미팀이 이 사건이 공론화할 경우 박 대통령의 방미일정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자체판단에 따라 보고시점을 늦추며 귀국 때까지 상황을 관리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착잡·곤혹·뻔뻔**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의를 표명한 이남기 홍보수석은 지난 10일 긴급 회견을 열었고, 의혹의 당사자인 윤 전 대변인은 지난 11일 해명 기자회견을 가졌다.(왼쪽부터) /연합뉴스




## "엉덩이 만졌다" "노팬티였다"

### 윤창중, 공직기강팀 조사 때 시인

### 경찰수사·재판 대비 위해 번복한 듯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팀 조사에서 피해 인턴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또 인턴 여성이 윤 전 대변인의 숙소인 워싱턴 D.C 소재 호텔방으로 올라왔을 당시 자신이 "팬티를 입고 있지 않았다"고 시인한 사실도 드러났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은 이러한 사실을 공직기강팀에 진술하고 자필 서명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윤 전 대변인은 11일 기자회견에서 공직기강팀에서의 진술 내용 중 핵심 부분을 거의 다 번복하면서 사실상 성추행 의혹을 전면부인했다.

공직기강팀은 윤 전 대변인이 지난 9일 귀국한 이래 그의 성추행 의혹과 귀국 정황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윤 전 대변인은 워싱턴 소재 주미 한국대사관 인턴 여성이 미국 경찰에서 한 진술 가운데 일부는 시인하고 일부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변인은 현지시간 8일 오전 인턴 여성을 숙소인 페어팩스 호텔룸으로 불러 "성관계를 요구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윤 전 대변인은 인턴 여성이 미 경찰에서 한 진술 가운데 7일 오후 숙소 인근 호텔 바에서 '허락 없이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엉덩이를 만졌다"고 시인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와 함께 호텔룸으로 인턴 여성이 왔을 때 자신이 '노팬티 차림'이었음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변인은 그러나 기자회견을 자청해서는 숙소 인근 호텔바에서 "다만 30여분동안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나오면서 제가 그 여자 가이드(인턴)의 허리를 툭 한차례 치면서 '앞으로 잘해, 미국에서 열심히 살고 성공해'라고 말하고 나온 게 전부"라고 번복했다.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격려의 의미에서 여성 인턴의 허리를 툭 한번 친 것일뿐 언론에 보도된 대로 엉덩이를 만지지는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윤 전 대변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에서의 진술을 기자회견을 통해 번복하는 것은 향후 미 경찰수사와 재판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시각이 많다. /연합뉴스

## "미국 사법당국 형사공조 요청 아직 없어 경위 파악 중"

### 법무부, '윤창중 성추행 사건' 법리검토 착수

젊은 재미교포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미국 현지 경찰에 입건된 윤창중 청와대 전 대변인 사건과 관련, 법무부가 경위 파악 및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윤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은 21살의 미국 시민권자로 워싱턴DC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미국과 한국은 모두 형법상 속지주의(자국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자국 형법을 적용), 속인주의(자국 영역을 불문하고 자국민에게 자국 법을 적용) 원칙을 갖고 있다. 관례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을 우선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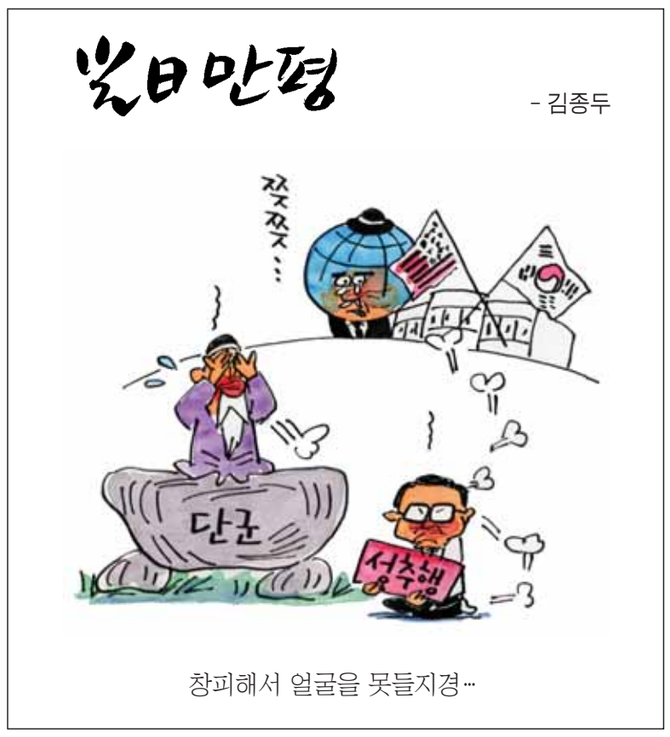
이번 사건의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한 신고를 현지 경찰이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귀국한 윤씨는 한국인이므로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 수사기관에도 사건 관할권이 있다. 그 다음부터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로 나뉜다. 사안의 경중, 법정형량 등이 고려 대상이다.

우선 윤 전 대변인의 범행이 명확히 파악돼야 한다. 비교적 경미한 사안인 경우 한국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윤씨가 한국인인데다 국내에 입국해 있기 때문에 관련 조사나 사법처리 절차가 비교적 간단히 진행될 수 있다. 피해자 조사 결과는 미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넘겨받게 된다.

미국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경우 사안이 더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다. 단순한 성추행을 넘어 위력 행사·폭행 등이 가미된 성추행이거나 성폭행인 경우 미국에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미국 측의 형사공조 요청이 온 상황은 아니다"며 "일단 사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HNT 하나투어
www.HanaTour.com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하나투어 광주/전남 전용 상품으로 화사한 봄나들이 가세요~!

상담 및 예약 :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 | |
|---|---|
| 윤기주하나투어 [신세계 이마트 1층] | 062)360-0166 |
| 세정투어여행사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 062)464-8000 |
| 모든나라여행사 [전남대정문] | 062)521-2100 |
| 남해여행사 [목포 한사랑병원] | 061)287-4100 |
| 여로관광여행사 [순천 궁전예식장 건너편] | 061)742-1270 |

하나투어 여행박람회
HANATOUR INTERNATIONAL TRAVEL SHOW 2013
일 자 5월24일(금)~5월26일(일) / 3일간
장 소 고양 킨텍스 제 2전시장 (7,8 HALL)

편안한 무안출발 상품!

기기묘묘한 절경 장가계!
집중모객
[CCPF02-MU] 출발일 5월 29일~ 6월 1일 지역명 상해/장가계 4일 상품가 ~~1,099,000원~~ → 999,000원~
※불포함 사항: 유류할증료, 가이드/기사 TIP $40, 중국비자발급비용(24,000원), 기타 개인비용
※특전: 천문산 케이블카, 발마사지
※특식: 양고기 샤브샤브, 삼겹살 무제한
[CCPF02-MU] 출발일 6월 8일~ 6월 12일 지역명 상해/주가각/장가계 5일 상품가 ~~1,129,000원~~ → 1,069,000원~
※불포함 사항: 유류할증료, 가이드/기사 TIP $40, 중국비자발급비용(24,000원), 기타 개인비용
※특전: 천문산 케이블카, 발마사지, 주가각 뱃놀이
※특식: 양고기 샤브샤브, 삼겹살 무제한

거대한 자연, 맛있는 음식! 대만 여행
단하루!
5월 16일(목) 석가탄신일 3박 4일
[CTPF01-CI] 대만 4일 딴수이*지우펀 899,000원~
※특식: 샤브샤브, 몽골리안BBQ
※특전: 아류 해양공원
[CTPF01-CIB] 대만 4일 이류*화련 *101빌딩 1,149,000원~
※특식: 샤브샤브, 몽골리안BBQ, 태평양 식당
※특전: 아류 해양공원, 온천욕, 101빌딩, NO TIP
[CTPF01-CI A] 대만 4일 이류/*화련 949,000원~
※특식: 샤브샤브, 몽골리안BBQ
※특전: 아류 해양공원, 온천욕
[CTPF01-CI D] 대만 4일 이류*화련 *多 드림 1,249,000원~
※특식: 샤브샤브, 몽골리안BBQ, 태평양 식당, 오각선반
※특전: 아류 해양공원, 온천욕, 101빌딩, 발마사지,NO TIP

하나투어 단독 크루즈 6월 2일 출발!
스타크루즈 제미니호 여수·제주·상해 5일
코드 CCC820 ₩750,000원~
☞크루즈 4박
[여수·제주·상해·여수]

하나free
타이완(대만) 자유여행
[CTAF01 - CI] 5월 16일! 단, 하루
타이완(대만) 4일 599,000원~
※호텔: 3성급 호텔 ※특전: 탐엔탐스 커피팩 증정

광주/전남 기획상품
[청주출발/ 노팁/국내수송포함] 백두산 4일/ 5일
● 출발일 6월29일 / 7월13일 / 8월20일
● 지역명: 청주 출발 · 연길직항 백두산 4일/ 5일
● 상품가 6월29일 - 98만원 (북파 일정) 7월13일 - 118만원 (북파 일정) 8월20일 - 128만원 (북파 + 서파 일정)
● 불포함 사항: 개인경비
● 포함 사항: 비자비용/5월 기준 유류할증료/ 기사사이드 팁
● 특전: 광주-청주 수송비 포함, 발맛사지, 전일정 호텔 4성급 숙박, 백두산 DVD제공 (방금 제공) 백두산 백산수 생수 증정 (1인 1병)
● 특식: 친무봉 송이 버섯밥
[노팁/특급/국내수송포함] 서안,낙양,정주 6일
~~1,550,000원~~ →1,450,000원~
● 출 발 일 : 6월 12일(수) ~ 17일(월) / 5박 6일
● 포함사항: 5성급특급호텔 기사/가이드 팁($60), 중국비자, 3일 유류세 광주↔인천공항 수송비
● 특 전: 서안-징한기무소($50) 승산케이블카($30) 전신마사지(시간팁별도)
단,하루! [국내 수송 포함] 동유럽 5개국 9일
~~400,000원~~ →3,700,000원~
● 출발일 : 6월 24일
● 동유럽 5개국 : 체코/폴란드/슬로바키아/헝가리/오스트리아
● 포함사항: 호텔 / 4월 유류세 포함 광주 ↔ 인천 공항 수송비
● 불포함사항:공동경비 (인솔자,가이드,기사 식당TIP, 식당물값 등) 1인 90유로,개인경비
● 특 전: 전 일정 7박 중 디럭스(5★) 또는 세미 디럭스 호텔 (4★이동, 대한항공 프리미 직항 이용 (KE 마일리지 적립 8천 마일가능), 3대 옵션 (디뉴브 야간유람선,월츠체험, 프리하야경+카페음료)포함

집중모객
[JKP776-BKF] 특급 세키아 온천 * 야나가와 뱃놀이 일본-북큐슈 3박4일 부관훼리
출발일 5월 11일(토) , 25일 (토) 349,000원~
● 포함사항 : 선내식(4회, 유류세(3만원) 광주-수송-부산항 국내수송 포함
● 불포함 사항 : 기사/가이드팁(3만원)
● 특 전 : 구미모토 특급온천호텔, 가와쿠다리 뱃놀이 쓰루가이드 동행

국내/제주도 상품
[AKPK73] [광주출발] [패키지] 제주도 3일 생생 웰빙투어/세계자연유산 318,000원~
특전: 전 일정 식사제공, 아쿠아플레넷, 승마체험 등 *우도투어, 올레길체험 여행문의 환영
[AKAK72~79] [광주출발] [자유여행] 제주도 3일 숙소+항공+렌트 포함 319,000원~
특전: 네비케이션 장착* 다양한 숙소 예약 가능 * 매일 출발 가능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가이드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세는 상기상품 가격외 별도지불되며 항공사별로 상이하므로 확인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선택경비 선택관광경비, 안내원봉사료 등은 고객님의 선택에 의해 현지에서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출발일/출발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번지 ㈜하나투어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 제26004-1993-6(종로구청) ■관광불편신고 Tel 1577-1233 \ ■22억1천만원 보증보험 가입 ■숙소:2급호텔이상 ■교통편:항공/버스/페리 ■항공사별로 유류할증료 인상금액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